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오주승



대통령 선거가 불과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범여권의 구도는 훈미 양상이다. 시나리오만 무성하다. '당 대 당 통합', '제 3지대 혜택모여식 통합', '소통합', '대 통합' 등 정당·정파간 통합 방식을 놓고 수많은 방정식이 오락가락한다. 대선 후보 선출을 놓고 범여권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비롯, 여권 성향 정당이 제각각 독자 후보를 낸 뒤 막판에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나 노무현·정봉준식의 후보단일화를 이루는 방안까지 다양하다.

이같은 시나리오의 배경에는 실체가 불분명한 나관론이 자리잡고 있다. 시기가 문제일 뿐 언젠가는 비(非)한나라당, 반(反)한나라당 성향의 정파가 대선 승리를 위해 대통합의 결단을 이룬 뒤 한나라당 후보와 승부를 거둔다는 전망이다.

'특정인 배제론' 철회해야

수많은 시나리오 중 하나가 우여곡절로 실현됐다. 지난 4일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이 합당, '통합민주당' 창당을

이트를 받고 있다.

박 대표의 부침은 역설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성쇠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는 2004년 3월 대통령 탄핵 사태를 주도했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지지도가 급락하자 '후단협'의 주요 멤버로 참가하면서 노 후보 교체를 주장했었다. 2003년 민주당 분당 사태 때는 '민주당 정통모임'을 이끌며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한마디로 현 정부 인사들과는 상종하기 힘든 사이다.

민주당, 대통합의 길로 가라

외치고 있다.

참여정부의 낮은 지지도, 열린우리당의 분열,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의 부재라는 상황 속에 호남이란 특정 지역을 연고로 한 민주당이 뜨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승가는 금년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둔 한국적 정치공학이 만든 현실일 뿐, 국민들의 지지도와는 별개다. 민주당 자체의 지지도는 아직 한자리 숫자에 머물러 있다.

민주당의 고공 인기(정치권에 국한된 얘기지만)의 중심에는 박상천 대표가 있다. 그는 2004년 4·15 총선에서 낙선한 아픔을 딛고 절치부심, 정치권의 스포트라

그가 지난 3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합' 주창자인 장상 대표를 누르고 당 대표로 뽑혔을 때 범여권 대통합에는 암운이 끼었다. 비주류인 그가 당권을 장악한 데는 범여권 통합으로 입지에 불안을 느끼고 있던 원외 인사들의 적극적 지원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명쾌한 논리로 유명한 박 대표는 복기 일성으로 '특정세력 배제론'을 꺼내들었다.

참여정부의 국정 실패 책임자, 민주당-열린우리당 분당 책임자, 좌파 인사와는 당을 함께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를 배제해야 '도로우리당'이 안된다라는 논리다.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 간 통합합의문에서 문제의 '배제론'은 빠졌다.

그렇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불씨는 여전하다.

박 대표도 합당 선언 당시 기자회견에서

"배제론을 철회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의 주장에 일리도 있다. 참여정부 집권 초기 안하무인적 태도로 헬vetica 정책을 특검의 손에 맡기고 민주당을 쪼갠 세력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한다. 포퓰리즘적 아미추어식 운영으로 국정에 실패한 인사들의 진실한 반성도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배제론은 철회되어야 한다. 박 대표가 배제론에 집착할 수록 민주당별 통합은 '소통합'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소통합은 결국 대통령 선거와는 무관한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정치 철학들의 임시방편적 이합집산이자, 호남 유권자들을 또 다시 정치적 인질로 잡는 행태 외 아무 것도 아니다.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편칼럼

이상욱



가정의 달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었다.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었지만 가슴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5·18도 있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 달에는 6일 현충일이 있고 동족상생의 비극 6·25가 있다. 현충일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이들의 영혼을 추모하는 날이다. 이 날은 조기를 계양하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가급적 음주가무를 삼가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장렬히 순국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야 할 것이다.

오전 10시 전 국민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1분간 애국지사와 전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며 엄숙한 자세로 묵념을

를 해드리고 더 따뜻한 동포애로 그분들을 푸옹해야 한다.

정부는 이 달을 열흘씩 나누어 추모, 감사, 학습의 행사를 한다고 한다. 정부는 그분들을 위해 빈틈없는 보훈 정책을 꾸준히 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싸우던 순국하신 그분들을 불행한 역사의 희생양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또한 지금까지 부상의 고통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상이용사를 을 단순한 장애인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 분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싸우다가 전사를 하고 또 부상을

기고



박형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실버단지 설치 적극 권장, 중앙 정부 지원, 노인들이 모여 잘 살 수 있도록 (어느 오래된 신문 기사).

XX 장애인들의 공간(회관)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건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 일이) 성사되도록 도와달라(한 시민).

좋은 일이다. 장애인들에게, 노인들에게, 그들만을 위한 공간을 특별히 만들어 준다니. 당사자들도 좋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시적인 선물을 줄 수 있으니.

가치이다. 윤리이다.

아무리 IT 시대에 접어들었고, 가족이 해체되어 학가족 시대에 접어들었다 해도 우리 국민 대다수는 대가족 제도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않았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늙어서도 양로원 등 시설에 수용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치매가족과 상담에서 가족들이 진정 고통스러워함은 부모를 시설에 보내드리지 못함이 아니라 가까이서 모시지 못하고 시설에 보내야 하는 심적 고통이 적지 않았다는 어느 치매관련 전문의의 전언이다.

우리는 신정보다는 구정을 원다. 서

다시 현충일을 맞으며

울어야 한다.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새삼 웃음을 예고고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 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 그 분들의 존엄한 정신을 이어받아 나리를 굳건하게 수호하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또 이미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된 일본, 중국 그리고 아직도 믿을 수 없는 북한을 주변국으로 둔 우리는 국 민 각자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조국을 남기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선진 조국 건설을 위해 매진하는 길이야말로 호국영령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순직한 그 분들의 유가족들을 찾아뵙고 가슴 깊이 진심으로 위로 은펜클럽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 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입니다.

당했는가! 그 분들 때문에 지금의 대한 민국이 있고 또한 우리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꼭 보훈의 달이라고만 해서 그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달이 지나가면 곧 무관심해지는 그런 단발성 예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항상 그 분들의 공훈을 감사하게 깊이 느끼며 따뜻하게 대해야 할 것이다.

광복 62년 6·25전쟁 발발 57년 베트남 전쟁 종식도 30여년, 5·18 민주화 운동도 벌써 27년이었다. 조국을 찾고 지키기 위해 국가의 발전을 위해, 민주화를 위해 귀한 목숨을 초가같이 던진 모든 분들의 명복을 재삼 빌며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는 상이용사들에 대한 고마움을 빌어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

〈수필가·2005년5월 수상자〉

그들만의 천국(?)을 만드는 일은 산업에서 땅에 그려지며 농업에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산업단지에 실버단지 설치 적극 권장, 중앙 정부 지원, 노인들이 모여 잘 살 수 있도록 (어느 오래된 신문 기사).

그들이 살고 있는 산업단지에 실버단지 설치 적극 권장, 중앙 정부 지원, 노인들이 모여 잘 살 수 있도록 (어느 오래된 신문 기사).

그들이 살고 있는 산업단지에 실버단지 설치 적극 권장, 중앙 정부 지원, 노인들이 모여 잘 살 수 있도록 (어느 오래된 신문 기사).

차량 출고시 의무적으로 안전장치 장착하게 했으면

지난 2일 발생한 호남터널 화재사고는 견인 작업 때문에 터널 출구 부분에 멈춰 선 차량들을 25톤 트럭이 덮치면서 발생했다.

사고 후 터널 바깥에 안전장치를 설치 했거나 선풍기로 등으로 수신호를 보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보도가 없어 아쉬웠다.

시속 60km로 주행하는 차가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85m, 시속 100km에서는 100m 이상의 정지거리가 필요하므로 차량상황 발생시는 100m 이상의 거리에 전방에 차량이 있다는 안전표식을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이 발생한 경우 서

로의 약속된 방법의 하나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동차에 안전장치가 실려있지 않는 것이 적발될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미설치 행위때도 승용차 4만원, 승합차 이상은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잘못된 의식구조로 인해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어렵다.

차량 출고시에 의무적으로 안전장치와 선풍기 등을 장착하게끔 법적·제도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조은·한국도로공사

시설

범여권 '빅뱅' 여론은 '소통합' 아니다

했다고 볼 수 있다.

대선정국은 한나라당 독주 형세다. 한나라당 '빅2'의 지지율이 70% 이상을 점유하는 상황이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범여권은 분열을 거듭하며 지지율 10%대의 대선주자 한 명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권의 유력 후보가 없어 대선구도가 정상화될 수는 없다.

물론 책임은 과거 집권여당에 있다. 민주당은 제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면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분당에 직면해야 했다. 원내교섭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한 '꼬마 민주당'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득권을 고집해선 '지역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흔히 정치는 생물이라고 한다.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민심이다. 지금의 민심은 어느 당이든 일방적 독주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 통합민주당의 창당이 광주·전남의 민심을 정확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호국·보훈 정신 없는 국가의 미래 없다

6월은 우리 민족에게 남다른 의미의 달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유달리 6월에 비극과 격정, 그리고 희망의 토대를 이룩한 달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또다시 맞는 제 52회 현충일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각종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본사가 주최하는 광일 보훈대상도 올해로 34회째를 맞았다. 모두가 의미 있고 계승되어야 할 행사다. 하지만, 오늘날 호국·보훈 정신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얼마나 건강하게 뿌리 내렸는지는 의문이다.

우리의 호국·보훈 정신의 현 주소를 보면 부끄럼기 짙어 없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대부분 걸치례에 불과하고 호국의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어느 수준인지 스스로 반성해 보게 한다. 최근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 가운데 '유사시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10.1%에 불과했다. 40%가 넘는 일본과는 너

무 대조적이다. 호국을 박대한다는 말이 나올만도 하다. 선진국일수록 나라를 이끌어 가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깊이 한다. 가장 고귀한 목숨을 국가 위해 아낌없이 내놓은 일야말로 인간의 행동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조국을 위해 봉사한 분들과 그들의 가족을 기억하고 대접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책무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번영은 그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보훈의식이 강조돼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모두 그동안 호국·보훈의 참정신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현충일을 맞아 되돌아 봐야 할 때다. 광일 보훈 대상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분위기와 널리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IU의 경제 전망



최근 국내 민·관 경제연구기관들의 한국 경제성장을 상향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제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트 유Nit(EIU)이 그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눈길을 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당초 4.3%대에서 4.5%대로 상향 조정하며 한국이 1분기에 이미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연은 같은 맥락으로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를 접쳤다. 한국은행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를 기관이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당초 예상보다 소비와 투자 회복세가 가빠른 점이다.

그러나 국제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트 유Nit'은 지난 1일 정반대의 전망치를 내놓았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지난해 5%에서 올해 4.2%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세계경제가 2007~2008년에 연평균 4.8%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대조적이다.

대통령과 경제 각료들은 EIU가 한국 경제에 대해 이런 전망을 했을까에 대해 곱곰히 따져 볼 일이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